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7호 [루계 제26021호] 주제 107 (2018)년 5월 27일 (일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였다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이 주제 107(2018)
년 5월 26일 판문
점 우리측 지역 통일
각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
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 통일각에
나오시여 문재인대
통령과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였다.

북남관계의 새
출발과 화해 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평화의 상징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있었다.

집중되었던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29일만에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
들의 뜻깊은 만남이 또다시 이루어
졌다.

회담장인 판문점 통일각에는
문재인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정렬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판문점 분리선
을 넘어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
나누시였다.

도착한 문재인대통령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상봉의 인사를 나누
시였다.

두 수뇌분들께서는 한 달 만에

역사적인 장소에서 또다시 역사적
인 상봉을 하게 된 기쁨과 반가움
을 금치 못 하시며 굳은 약수를
나누시였다.

회담에 앞서 문재인대통령은 판문
점 우리측 지역 방문을 기념하여
통일각 방명록에 『한반도의 평화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
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제인』이라는 글을 남기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
는 문제들, 조미수뇌회담의 성공
적 개최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
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을 수행
한 남측 인사들 파
일 일 이 약수 하시며
반가움을 나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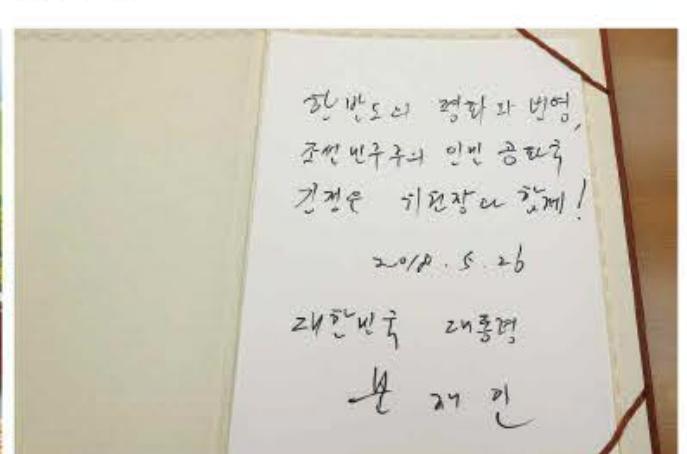
이어 김정은동지
와 문재인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
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
서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가 참가하
였다.

남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에서 합
의된 판문점 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면 으로 계속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 담긴 판문점선언이 하루빨리 리행되도록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북남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에 개최하며 하시였다.

현이어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부문별회담들도 가속적으로 추진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을 합의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한 립장을 표명하시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 대화를 적극화하며 지혜와 힘을 합쳐나갈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미수뇌상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대통령의 로고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역사적인 조미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미관 대화를 적극화하며 지혜와 힘을 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회담에서 룬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시며 작별 인사를 나누시였다.

북파남의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게 될것이다.

의견해를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신 이번 상봉은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

민족의 화해 단합, 평화번영의 상징으로 역사에 아로새겨진 판문점에서 또다시 진행된 제4차 북남수뇌상봉은 우리 겨레 모두에게 중대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 왕선화동지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높이 반들고 나라의 음악예술발전에 기여한 김원균·명청·음악종합대학 교원인 민배우, 부교수 왕선화께서는 당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 에谯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과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세계평화위원회 위원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몽골, 카보자, 파키스탄, 끄르로스, 일본, 단마르크, 벨라루시, 스위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리비아, 에谯트, 브라질, 베네수엘라, 브루, 에페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일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이번 상봉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지략과 대용단에 의하여 마련된 역사적인 사변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하고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평도밀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 인터넷통신이 보도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의 전문을 최근 인디아의 인터넷통신 보이

스 오브밀리언즈가 보도하였다.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문헌을 모시였다.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에 대한 혁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사진 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

터넷통신 예로페이-네트워크가 보도하였다. 통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사진 문헌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천이다』를 16일 로씨야의 인

승리의 신심드높이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 총동원할 때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가 천만군민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영농전투에도 힘있게 고무주고하고있다.

사회주의협동법 그 어디에서나 뜻깊은 울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안고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세차례 나에게 치고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궁지 높은 현실인가.

돌이켜 볼수록 농사문제를 더 없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력전방으로 정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형도의 나날들이 기가슴뜨겁게 어려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력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농작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식량문제, 이는 인민생활향상에서 판결문제이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반발하고 한사랑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몇해전 2월 전국농업부문장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서한의 구절구절이 뜨겁게 막힌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경제강국건설의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력전방이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압력과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식량난을 겪게 하여 그들의 미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국과,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서려야 한다.

나라의 평통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들은 만이 아닌 나라 인민을 사회주의수호전에 산악같이 불러일으킨 전투적기처였다.

경제전선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두쟁에서 주력전방인 농업전선의 돌원구를 열어끼자면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을 정상화하고 그 길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정력적으로 명도하시였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 104(2015)년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는 기계와 토양판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농기계와 부속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면 뜻깊은 그날을 잊지 않고 있다.

전시장을 돌아보시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업근로자들을 어려워 힘도로동에서 해방시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활의 넘원이였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농기계생산에서도 주체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자연자리적, 지방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다수형도된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야 한다고 그 방도까지 가르쳐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농기계 및 부속품생산기지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인 농업전선의 병기창이라는 크나큰 믿도로 안주시였다.

농기계생산자들이 싸우는 고지에 더 많은 편익을 보내주는 구호를 들고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차지로 세계에 풍靡한 농업혁명령의 기본고리로 내세우시고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여러가지 다수학품종을 염려나가는데 풀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에서 수확한 다수학품종의 농작물을 보시면서 수확한 풋풀과 함께 말씀하시였다.

한평생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콩은 날, 마른 날 가립없이 능장과 포전길을 걷고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육종해낸 다수학품종의 농작물을 보시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넘원을 친환경한 현실을 꽂피워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수확한 풋풀과 함께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프리카동맹 그리고 그 성원들이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7(2018)년 5월 25일

아디스 아바바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무싸파끼 마하마드각하

나는 아프리카의 날에 즐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대륙의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대륙의 정치경제적통합을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며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충실히 촉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은 아프리카동맹과 대륙인민들이 국제무대에서 대륙의 지위와 발언권을 높여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굳은 지지와 현대성을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프리카동맹 그리고 그 성원들이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7(2018)년 5월 25일

아스마라 에리트레아국가 대통령

이싸야스 아페워르키각하

나는 귀국의 독립절에 즐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할것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촉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7(2018)년 5월 24일

행군동도는 시베즈풀안에서 숙영하게 되었다.

그때 사령관동지께서는 선발대로 도착한 소대장에게 어느 사이에 준비하지 않았는지 부근간간의 농민들과 법목장동지들에게 보낼 빠라와 선전문을 내놓으신데서 두 통부를 부랴부랴 전환함에 대한 입장을 주시였다.

소대장은 저예없이 대원 두 통부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그 통부들은 약간 남아 있었던 비상용미사기자를 나누어 요리를 하고 바빠 길을 떠났다.

잠시후에 사령관동지께서는 각 구분대 숙영지를 친히 돌아보시며 대원들을 일일이 보살펴시였고 풍작내보낸 소대에도 돌리시였다.

그 이께서는 사나운 눈보라속에서 숙영준비를 하고있는 대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을 퍼우고 물을 놀이도록 이르시였다. 그리고 산에서 끌어내려온 통나무 쌓는 것을 친히 도와주고 청자지들을 쭉어서 손수 불도 쬐워주었다.

그들이 그들의 자작성장을 밟을것이 아니라 친화관으로서는 그들이 더 용감하게 쌓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눈보라가 사납게 물부짖는 산아래 먼 법판쪽을 바라보시면서 공작나간 통부들을 넘겨하였다.

『날씨가 더 험해지는는데… 그들이 이 주운 눈길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는가.』

결에 있을 때마다 떨어져있을 때나 모든 대원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

때였다.

팔뚝같은 강냉이와 총알같이 여문

벼이삭을 비롯한 농작물을 이윽토록

비리보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

희한하다고, 보기만 해도 흐트라고, 이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볼 때면 가슴

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

며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새로운 강냉이와 밭벼종자들이 여문

벼이삭을 비롯한 농작물을 이윽토록

비리보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

희한하다고, 보기만 해도 흐트라고, 이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볼 때면 가슴

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

며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새로 9월에도 또다시 농장을 찾으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울해에도 당

의 종자혁명방침판찰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였다.

잇을수 없는 그날 풍년이 든 농장별에

서있노라니 파학농사 좋다.

종자혁명 좋다

는 구절이 절로 나온다고 하시면서 정

밀만족하고, 신실이 넘친다고, 자신에게는

설마이는 버마다. 강냉이바다의 파도소

리가 사회주의승리의 개가로,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려온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두고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의 불리는 애국심이 날

는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으리라고 우리 원수님

높이 평가하실 때 이들의 기쁨으로 세차

게 고동친것은 무엇이였더라.

다수학품종의 풍작농사 좋다.

종자혁명 좋다

는 구절을 절로 나온다고 하시면서 정

밀만족하고, 신실이 넘친다고, 자신에게는

설마이는 버마다. 강냉이바다의 파도소

리가 사회주의승리의 개가로,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려온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두고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의 불리는 애국심이 날

는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으리라고 우리 원수님

높이 평가하실 때 이들의 기쁨으로 세차

게 고동친것은 무엇이였더라.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형도가 있어 세인을 경탄시키는 창조와

자랑스러운 현실을 풀어주나니

제1제대 제1선

에서도 자랑스럽게 펼쳐지고있는 것 아니

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한 정도 따라

이 땅에 기여한 풍요로운 가을을 안아오

려는 것이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

원회의 결정판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제1제대 농장에서 새롭게 유통

하는 원수님의 축복이다.

한국농민들이

나라의 종합적인 풍작농구개발기지로 훌륭

히 꾸려주고 걸음을 걸었을 것이다.

본사기자 전광남

지난해 9월에도 또다시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울해에도 당의 종자혁명방침판찰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였다.

잇을수 없는 그날 풍년이 든 농장별에

서있노라니 파학농사 좋다.

종자혁명 좋다

는 구절이 절로 나온다고 하시면서 정

밀만족하고, 신실이 넘친다고, 자신에게는

설마이는 버마다. 강냉이바다의 파도소

리가 사회주의승리의 개가로,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려온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두고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의 불리는 애국심이 날

는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으리라고 우리 원수님

높이 평가하실 때 이들의 기쁨으로 세차

조국의 기상을 만방에 떨친 태권도강자들

제 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거둔 우리 선수들의 자랑찬 성과를 두고

얼마전 물결에서 진행된 제 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리의 미더운 태권도선수들은 우승컵 5개, 금메달 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고 나라별 종합 순위에서 영예의 제 1위를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선수들이 안아온 승전 소식은 역사적인 당중당위원회 4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파업 판결에 험처나선 온 나라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체육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온갖과 심장을 불태우며 국체경기들에서 영광으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해나가는 당의 미더운 체육전사, 조국과 인민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어야 한다.»

이번에 우리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에 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는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하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5월초 제 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나는 리영일, 한정애 강돌과 매 선수들의 가슴마다에는 조국의 흙주머니가 소중히 품어져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한 명도아래 그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른 조국의 기상을 만방에 펼쳐갈것을 바라는 철철한 당부가 어린 흙주머니였다.

태양의 성지 금수산태양궁

전이 빛나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높이 솟아있는 위대한 내 나라의 흙을 어루쓸어보는 강독들과 선수들의 머리속에는 선수권대회준비를 위한 훈련의 나날들이 주마등같이 흘러갔다.

조선 태권도원 회에서 는 공화국왕전 일흔이 되는 해에 열리는 제 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빙틀 없이 짜고드는 한편 선수들의 육체기술능력을 높이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뜻깊은 출발의 국제경기무대에서 태권도모국의 기상을 더 높이 펼쳐 춤을 춤내는 춤꾼들은 예선에서 맞아든 일본선수들을 3:0이라

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타승하는 순간 결승경기에서는 몽골팀을 3:1로, 결승경기에서는 시기 경기성적이 좋은 까자흐스탄팀을 3:0으로 이기고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김길화, 김향심, 함수경, 김정동등 무

들은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박미향선수는 높은 기술을 발휘한 것으로 하여 너자개인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우리 태권도선수들은 한차례 한차례 우승을 생활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평양의 하늘과 우려려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삼아 울리었다.

이번 제 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강의한 정신력과 함께 높은 육체기술적, 전술적 위력이 남김없이 파괴되었다.

이번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기에 전형된 선수권대회를 멀리히 분석하여 감독들 팀의 맞서기 전술을 더욱 완성하는데 주목을 돌리었다.

이들은 불의의 동학반봉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헌신한듯이 되어 단체를 동작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간 김길화, 박미향, 김은화동무를 비롯한 너자개인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이들의 가슴속에서 고동친것도 피끓는 청춘의 심장을 다 바쳐 조국의 금메달열풍을 사랑하며 헌신한듯이 되어 단체를 동작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간 김길화, 박미향, 김은화동무를 비롯한 너자개인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이제 우리 선수들은 준결승경기에 이르렀다. 이전 기세드높이 결승경기에 서도 몽골선수들을 기술적차이로 누르고 우승의 단을 우뚝 올랐다.

또한 조국현, 김준성, 리성훈, 김남우, 최현일, 박원숙, 리두성동무를 비롯한 남자태권도선수들은 다른 세부종목경기들에서도 승리의 포상을 편속을 향해 달려왔다.

우리 나라의 왕명국선수는 남자개인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조국의 영예와 기상을 넘김없이 펼쳐 일념을 알고 이국의 주로를 험하게 달려온 우리의 미더운 태권도선수들의 불같은 열의에 떠받들려 선수권대회장에는 존엄높은 탐홍색 공

개인맞서기, 개인특기, 단체를, 단체워력경기를 비롯한 세부종목경기들에서 렌이어 승리의 금메달들을 안아올렸다.

특히 너자개 맞서기 경기는 시 참가한 우리 선수들은 예선에서

그 대표적 실례가 로씨아림파

전쟁한 남자단체 맞서기 준결승 경기였다. 지난 시기 경기성적이 높고 육체기술적준비가 좋은

로씨아림파 선수들의 경기는 시 예술을 안아올렸다.

결승경기에서 진출하는가 못하는가가 결정되게 될 판관적인 경기에서 출전한 우리 나라의 왕명국선수는 경기를 침착하게 운영해나갔다.

로씨아선수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우리 선수보다 키가 훨

씬 큰것을 터유하여 맹렬한 공격으로 나왔다.

상대팀 선수의 점수가 앞선 상태에서 경기시간은 마감을 가까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명국선수의 신심은 멀리 놀라지 않았다. 평시에 험한 전술을 잘 살리면서 경기마다 7초를 넘겨놓고 불의

이동에 의한 36.0° 돌려차기 를 성공시켜 4점을 얻었다. 경기승리에 결정적역할을 한 성공

이였다.

우리 선수들은 준결승경기에서 이전 기세드높이 결승경기에서도 몽골선수들을 기술적차이로 누르고 우승의 단을 우뚝 올랐다.

또한 조국현, 김준성, 리성훈, 김남우, 최현일, 박원숙, 리두성동무를 비롯한 남자태권도선수들은 다른 세부종목경기들에서도 승리의 포상을 편속을 향해 달려왔다.

우리 나라의 왕명국선수는 남자개인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조국의 영예와 기상을 넘김없이 펼쳐 일념을 알고 이국의 주로를 험하게 달려온 우리의 미더운 태권도선수들의 불같은 열의에 떠받들려 선수권대회장에는 존엄높은 탐홍색 공

화국기가 수십번이나 오르게 되었다.

우리 선수들의 홀륭한 경기모습을 본 다른 나라 태권도전문가들의 밝함은 대단하였다.

중국태권도련맹 위원장은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태권도모국인 조선선수들의 태권도기술이 불멸의 년도가 새겨지게 될 것으로써 일제에게 빼앗겼던 몇으로써 일제가 20년만에 조국으로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 업적을 금문자로 영원히 아로새기게 되었다.

위대한 한 명도 차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걸립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대기념비적건축물이며 불멸의 혁명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개선문의 기본주제로 선정해주시면서 개선문에 혁명 송가를

제작되는 시와 노래가운데서 영생 불멸의 혁명 송가가

개선문 건설을 말기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 업적을

제작되는 시와 노래가운데서 영생 불멸의 혁명 송가가 되었다.

노래가 새겨져 있는 향토에는 원형구도로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를 상징한 «승리의 나팔수» 부각상이, 아침식물들에는 70층이 넘는 철탑에 꽂이 부각되어 있으며 개선문의 향토축면에는 선각의 수법으로 혁명의 성장 배

두간이 형상되어 있다. 개선문은 규모와 건축형식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건축양식들을 바탕으로 하여 특특하게 구성되어 있다.

개선문이라는 문형식의 기념비적건축물에 여러 가지 조각형식을 다채롭게 결합시킨 것은 개선문의 사상에 출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조선건축의 유구한 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살린 개선문은 모란봉의 숲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선문이라는 문형식의 기념비적건축물이다.

위대한 한 명도 차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걸

립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대기념비적건축물이며 불멸의 혁명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개선문의 기본주제로 선정해주시면서 개선문에 혁명 송가를

제작되는 시와 노래가운데서 영생 불멸의 혁명 송가가 되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은 역세계에 짜워나가려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황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 사상문화는 침략과 지배의 수단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에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반동적인 사상문화 침투책동이다.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번질와 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놓으면 총 한방 쏘지 않고 저들이 목적한 터를 손쉽게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자들의 타산이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오래 전부터 백제자주적인 나라 인민들의 민족자주식을 마비시키고 혁명적신념을 무너뜨리는 등 선차적 목표를 정하고 반동적 사상문화 침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 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 침투에서 기본은 다른 나라들에 부르죠아사상과 자본주의 생활양식을 전파시키는 것이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사람들의 전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며 청진적 불구자로 만드는 위험한 사상적독소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멸되는 것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물질적 재부는 다시 창조할 수 있지만 사상도적 파괴는 그 무엇으로써도 만회할 수 없다. 사람이 정신도적으로 타락될수록 소생하기 힘들고 민족이 타락하면 나라가 쇠퇴되어 뛰어나갈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사상문화 침투책동은 사람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부폐 타락시키는데 목적이 두고 감행되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의 신문화 방송, 출판물들은 사람들은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풍조를 조장시키고 인간의 전진한

정신을 마비시키는 가장 반동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미국의 웨이비존 방송에서는 시청

률이 가장 높은 시간에 폭력적이고 색

정적인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사상문화가 인간의 전진한 발전에 이비지하는 수단으로 아버지와 순수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되고 있는 자본

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씩어빠진 색정문화와 부르죠아 생활양식을 대대적으로 전파시킨 것으로써 사람들 부폐 타락시키고 사회를 번질시키며 고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들을 내부로 부터 부폐번질시키 허물어버리려는 기도에 부르죠아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침투시키기 위한 공세를 길질기게 벌렸다.

방송과 출판물은 물론이고 판광과 학교, 교육과 같은 공간들까지도 부르

죠아 사상문화를 침투시키는데 리용하

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나라들은 그에 대처

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씩어빠진 서방식 민주주의,

『자유화』 바탕이 사회에 휘몰아치

게 되었다. 결과 이 나라들에서는 정권

이 교체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

났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면 일부 나라들에서 그것을 허용한 결과 사회주의의 적인 생활양식이 모조리 파괴되고 사회가 광장으로 되었다.

종당에는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붕괴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 침투책동은 반체제적인 나라들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고 내부 혼란을 조성하여 제도권,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사람들이 제국주의 사상문화에 흐름

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방에 대한 환

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개인의 안일과 향

락, 부귀영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렇게

제국주의자들은 흐름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최근 시기에 들어와 미국은 저들이 민족으로 여기고 있는 군사적 힘은 물론 한가지

기대를 걸고 있던 대조선제제 소동과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은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었다.

국제 사회는 조미 관계에서 세계를 블

레이우는 국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

정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평화와 혁신적 노력을 결파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사실은 바로 이렇다. 우리가 회답을 통해

여기 미국의 『경제적 지원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번에 구태여 미국이 운운하는 『경제적 지원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틀림

만 기대도 걸어본적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장 수십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다. 언제 한번 제

제재에서 살아온 적이 없다.

현재 시기에 들어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의 반공화국제제 압박 소동은 더욱 악랄해졌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우리에 대

한 제재에 도움되었다.

세계는 우리가 얼마 못 가서 주저앉으려

라고 생각하였다.

세계는 우리의 무진막강한 힘을 보지 못

하였다. 고난과 시련을 용감하게 맞았어. 끝

고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굽함없는 공격정신, 주체조선의 비약의 원동력인 위대한 자

강에 대하여 끝이 끊어졌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런 것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언론들은 전심으로 종교를 주

건데 지금처럼 매운가로웃을 하며 허튼

소리를 늘어놓기 전에 우리의 역사적인

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적로선의 의미를 깊이 연구해보아야 한다.

오늘은 세계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그쳐

리학남

미국은 로씨야의 정부에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강경하게 싸

우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양보, 군부의

민족을 저지하고 팔레스타인과

민족을 저지하고 분쟁의 공정하고

하고 있지만 실패만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거짓선전

로 숨긴 것은 국도로 위험한 행

위로하고 저지하고 팔레스타인과

민족을 저지하고 분쟁의 공정하고

행위를 살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다.

그는 현 미정부의 관리를

그리고 그의 개념과 당시, 파거의 포

로, 죄수들에 비유하면서 돈만

마이애미에 22일 한 담화식 상에

서 자기 나라에 대한 제재를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

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로마로드 윤리동맹에 요구

라우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

그는 윤리동맹이 부당한 제재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

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그는 지난 2월 윤리동맹에 떨어졌다.

제재 철회를 윤리동맹에 요구

라우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

그는 윤리동맹이 부당한 제재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

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로마로드 윤리동맹에 요구

라우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

그는 윤리동맹이 부당한 제재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

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로마로드 윤리동맹에 요구

라우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

그는 윤리동맹이 부당한 제재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

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로마로드 윤리동맹에 요구

라우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

그는 윤리동맹이 부당한 제재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

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로마로드 윤리동맹에 요구

라우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

그는 윤리동맹이 부당한 제재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

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로마로드 윤리동맹에 요구

라우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

그는 윤리동맹이 부당한 제재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

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로마로드 윤리동맹에 요구

라우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

그는 윤리동맹이 부당한 제재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

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로마로드 윤리동맹에 요구

라우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

그는 윤리동맹이 부당한 제재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

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로마로드 윤리동맹에 요구

라우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

그는 윤리동맹이 부당한 제재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

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로마로드 윤리동맹에 요구

라우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

그는 윤리동맹이 부당한 제재

로 결정하고서도 그 리유에 대